



제6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참고문헌 1

#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유 학 열 부장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분석

유학열(충발연 농촌농업연구부 부장)

## 《요 약》

- 본 稿에서는 충남의 귀농인구 변화,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및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이주행태에 대해 파악, 분석하였다.
- 충남의 귀농인구(가구)도 전국적인 경향과 유사하게 2005년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과거 9년 동안 서천군이 181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공주시(137세대), 논산시(126세대)순으로 귀농가구가 많았다.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로서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가 29.3%로 가장 높고, ‘농촌이 살기에 더 좋기 때문에’ (25.6%),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17.6%)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농촌 이주 시 염려되는 점으로서는 ‘생활환경이 불편할 것 같다’가 36.9%로 가장 높고, ‘수입이 적을 것 같다’ 17.6%,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 14.0% 순으로 나타났다.
- 충남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는 동일 시·군 33.1%, 충청남도 내 타시·군 15.8%, 타시·도 51.1%로 나타나 과반수가 충청남도가 아닌 타시·도에서 전입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시·도 가운데에서는 경기도가 14.7%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11.0%, 서울 9.5%, 인천 4.5% 순으로 나타났다.

## I. 머리말

-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농촌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이주 즉, 귀농<sup>1)</sup>·귀촌<sup>2)</sup>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에는 영농만을 위한 귀농이 아닌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베이붐세대<sup>3)</sup>의 은퇴 후 농촌(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도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은 과소화 해소 및 도시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본稿에서는 충남의 귀농인구변화, 귀농·귀촌 의향 분석, 이주 행태에 대해 파악, 분석하고자 한다.

## II. 충남 귀농인구(가구)의 변화

### 1. 전국의 귀농인구(가구) 변화

- 1997년 IMF위기 이후 귀농인구가 급증하였으나,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 1998년~1999년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가구수가 연간 약 4,000~6,000가구로 급증하였으나, 그 후 2005년까지는 연간 약 1,000가구 수준임
- 최근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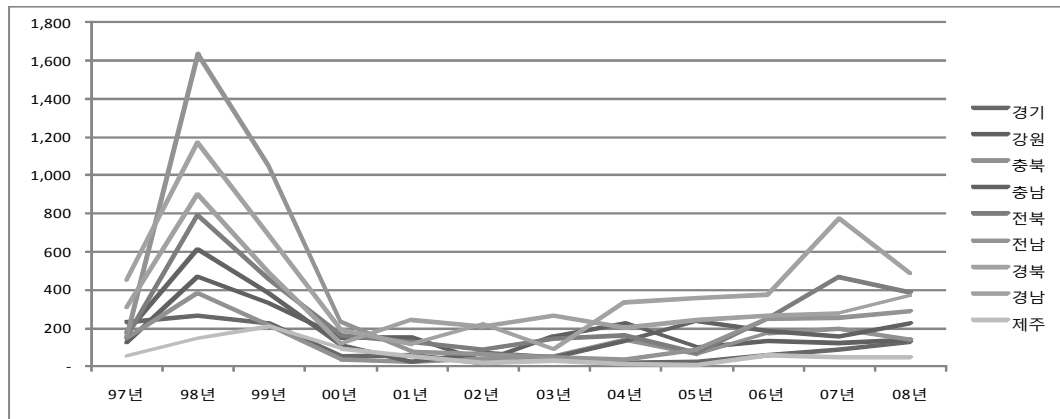
1) 본稿에서는 귀농을 농업생산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면지역이하)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이라 정의함

2) 본稿에서는 귀촌을 상기의 귀농을 포함하지 않고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으로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의미함

3) 戰後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며 1955년~1964년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됨

- 2007년 이후 전국적으로 연간 약 2,000가구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전북, 경남지역으로의 귀농인구 비율이 높다.

○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귀농인구 비율은 전국 대비 약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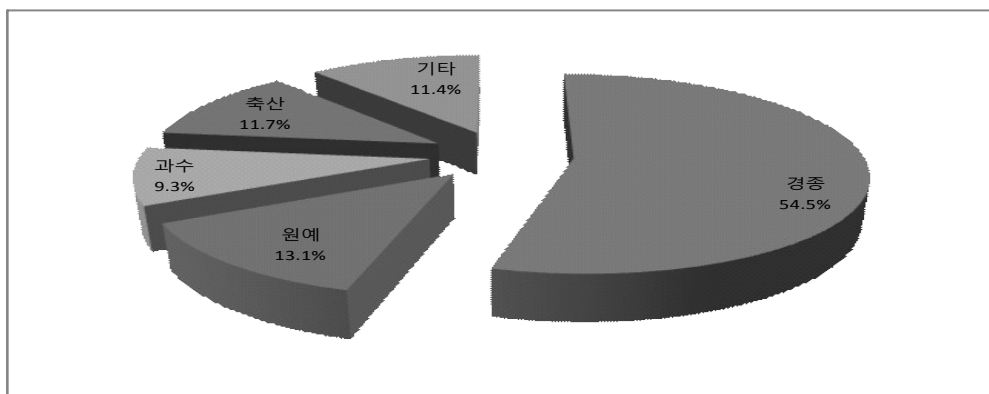


[그림 1] 전국의 귀농인구(가구) 추이

○ 30, 40대의 귀농자 비율이 높음(2004년 기준)

-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36.4%로 가장 많았고, 40대도 27.1%를 차지하여, 30대와 40대 합친 비율이 6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을 못하거나 실직한 젊은 층이 생계를 위해 귀농한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귀농자의 종사분야별 분포는 경종 분야가 54.5%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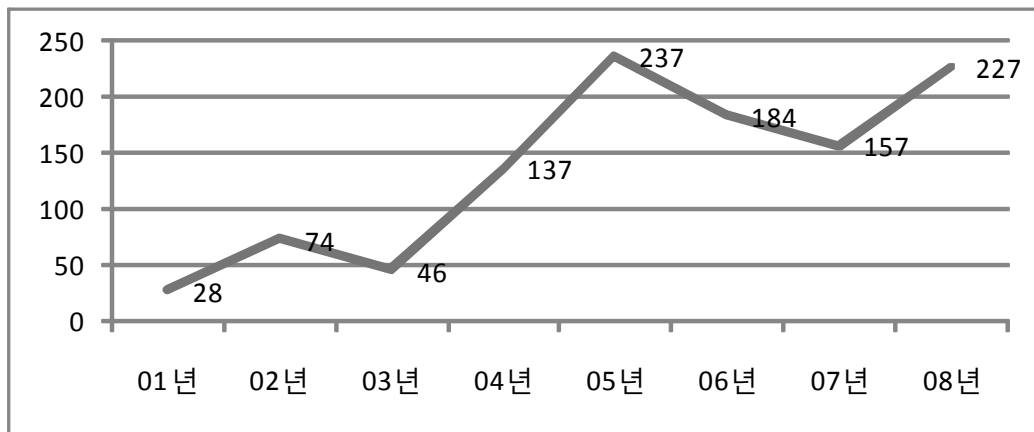
자료: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

[그림 2] 전국 귀농자의 종사분야별 분포(90~04년)

- 전업농 중심의 귀농에서 최근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이 등장하고 있다.
  - 귀농인구가 급증한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를 위한 ‘전업농업형태’의 귀농이 많았으나, 2005년 이후에는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휴양·요양형’, ‘도시출퇴근형’ 등 생계 이외의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귀농(귀촌)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 2. 충남의 귀농인구(가구) 변화

- 전국적인 경향과 유사하나, 2005년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다.
  - 2005년 기준 과거 4년 동안의 귀농가구수가 연평균 71.3세대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4년 동안은 연평균 201.3세대로 약 3배가 늘어났다.



자료: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그림 3] 충남의 귀농인구 추이

- 2009년 기준 과거 9년 간 시·군별 귀농인구 추이를 분석해 보면 서천군이 181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주시(137세대), 논산시(126세대) 순으로 귀농인구가 많다.
- 2004년 기준 충남지역으로 유입된 귀농가구의 종사분야를 살펴보면, 총 137가구 가운데 경종 분야가 71가구(51.8%)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 분야 19가구(13.9%), 원예 분야 16가구(11.7%), 과수 분야 10가구(7.3%)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해 보면 충남의 경우 축산 분야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과수 분야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 2004년 기준 충남지역으로 유입된 귀농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137가구 가운데 40대가 51가구(37.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39가구(28.5%), 30대 24가구

(17.5%), 60대 이상 21가구(15.3%)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2가구에 불과했다.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국의 경우 50대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 충남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충청남도 귀농가구의 종사분야 및 연령별 분표

단위: 명, %

| 구분 | 가구 수  | 종 사 분 야       |               |               |              |               | 연 령 별       |               |               |               |               |
|----|-------|---------------|---------------|---------------|--------------|---------------|-------------|---------------|---------------|---------------|---------------|
|    |       | 경종            | 원예            | 과수            | 축산           | 기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전국 | 1,302 | 723<br>(55.5) | 142<br>(10.9) | 135<br>(10.4) | 98<br>(7.5)  | 204<br>(15.7) | 34<br>(2.6) | 243<br>(18.7) | 402<br>(30.9) | 423<br>(32.5) | 200<br>(15.4) |
| 충남 | 137   | 71<br>(51.8)  | 16<br>(11.7)  | 10<br>(7.3)   | 19<br>(13.9) | 21<br>(15.3)  | 2<br>(1.5)  | 24<br>(17.5)  | 51<br>(37.2)  | 39<br>(28.5)  | 21<br>(15.3)  |

자료: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

### Ⅲ.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분석<sup>4)</sup>

- 전국의 도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향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특별히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충남지역을 선택한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이 19.2%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11.4%), 강원(11.2%)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 이주 희망지역의 도별 비율

| 경기    | 경남    | 강원    | 충남   | 전남   | 전북   | 충북   | 제주   | 기타    |
|-------|-------|-------|------|------|------|------|------|-------|
| 19.2% | 11.4% | 11.2% | 9.1% | 8.0% | 5.6% | 5.2% | 2.0% | 18.1%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농촌정주수요조사결과.

#### ◆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이유

-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은퇴 후에 여가생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촌이 살기에 더 좋기 때문에’, ‘나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 2000명 가운데 충남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한 자만을 분석

〈표 3〉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이유

| 이주하려는 이유                | 전국    | 충남    |
|-------------------------|-------|-------|
| 은퇴 후에 여가생활을 위해서         | 34.1% | 29.3% |
| 농촌이 살기에 더 좋기 때문에        | 29.8% | 25.6% |
| 나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 12.9% | 17.3% |
| 도시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 3.9%  | 0.8%  |
| 가족이나 친지와 가까운 곳에 살려고     | 2.9%  | 0.8%  |
| 집안의 농사일이나 가업을 맡아서 하려고   | 2.1%  | 0.8%  |
| 농사일을 하고 싶어서             | 2.1%  | 3.1%  |
|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 1.5%  | 3.0%  |
| 자녀교육을 위해서               | 1.2%  | 1.9%  |

◇ 농촌 이주에 대한 준비

-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 ‘농촌 이주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아주+어느 정도)’는 응답비율은 전국(25.8%)에 비해 충남(30.9%)이 높다.

〈표 4〉 농촌 이주에 대한 준비 정도

| 준비 여부              | 전국    | 충남    |
|--------------------|-------|-------|
| ①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3.0%  | 1.9%  |
| ②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다  | 22.8% | 29.0% |
| ① + ② 준비하고 있다      | 25.8% | 30.9% |
| ③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 41.7% | 38.6% |
| ④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 32.4% | 30.5% |
| ③ + ④ 준비하고 있지 않다   | 74.2% | 69.1% |

◇ 농촌 이주 후 경제 활동

〈표 5〉 농촌 이주 후 경제 활동

| 경제 활동 내용        | 전국    | 충남    |
|-----------------|-------|-------|
| 농사 이외의 자영업을 하겠다 | 24.0% | 24.3% |
| 전문직에 종사할 것이다    | 17.6% | 17.7% |
| 농림어업에 종사할 것이다   | 14.6% | 19.2% |
| 직장에 다닐 것이다      | 12.1% | 12.6% |
| 경제활동은 안할 것이다    | 30.8% | 25.5% |

◇ 농림어업 종사 시 희망 농어업 분야

- 농림어업 종사 시 희망 분야는 전국의 경우 과수(34.4%)가 가장 높았으나, 충남의 경우는 밭농사(44.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의 경우 논농사를 희망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농림어업 종사 시 희망 농어업 분야

| 농림어업 종사 시 희망 농어업 분야 | 전국    | 충남    |
|---------------------|-------|-------|
| 과수                  | 34.4% | 16.7% |
| 발농사                 | 33.7% | 44.1% |
| 논농사                 | 16.9% | 25.7% |
| 축산                  | 6.6%  | 6.1%  |
| 임업                  | 3.4%  | 3.7%  |
| 양식업                 | 1.7%  | 3.6%  |

◇ 이주지역 결정 시 고려 사항

〈표 7〉 이주지역 결정시 고려 사항

| 고려 사항               | 전국    | 충남    |
|---------------------|-------|-------|
| 생활환경이 편리한 지역        | 47.1% | 42.5% |
|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24.8% | 23.5% |
|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가 있는 지역 | 23.7% | 29.2% |
| 기타                  | 4.1%  | 4.7%  |

◇ 농촌 이주 시 선호하는 지역 조건

〈표 8〉 이주 시 선호하는 지역 조건

| 선호하는 지역 조건           | 전국    | 충남    |
|----------------------|-------|-------|
| 자연환경과 경관이 좋은 지역      | 61.5% | 61.7% |
| 산업 활동이나 사업 여건이 좋은 지역 | 13.7% | 17.3% |
| 주민 공동체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   | 7.3%  | 4.7%  |
| 숲이 있는 지역             | 6.3%  | 5.0%  |
| 농사여건이 좋은 지역          | 4.4%  | 3.4%  |
| 전통문화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   | 4.1%  | 5.8%  |
| 기타                   | 2.4%  | 2.0%  |

◇ 농촌 이주 시 염려되는 점

〈표 9〉 농촌 이주 시 염려되는 점

| 염려되는 점                  | 전국    | 충남    |
|-------------------------|-------|-------|
| 사업이나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   | 15.3% | 14.0% |
| 수입이 적을 것 같다             | 18.5% | 17.6% |
| 생활환경이 불편할 것 같다          | 37.1% | 36.9% |
| 원주민 이웃과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 6.9%  | 7.6%  |
| 도시지역의 친지나 친구들과 멀어질 것 같다 | 15.8% | 19.2% |

◇ 농촌 이주 시 예상되는 불편한 점

〈표 10〉 농촌 이주 시 예상되는 불편한 점

| 불편한 점             | 전국    | 충남    |
|-------------------|-------|-------|
| 생활편의시설 부족         | 17.7% | 13.3% |
|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시설 부족 | 34.5% | 36.0% |
|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 부족    | 24.3% | 32.2% |
| 여가나 문화시설 부족       | 16.7% | 11.4% |
|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설 부족   | 3.2%  | 3.7%  |

◇ 귀농·귀촌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표 10〉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 수요

| 지원 내용                 | 전국    | 충남    |
|-----------------------|-------|-------|
| 정보제공과 상담              | 6.1%  | 8.5%  |
| 행정적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 10.0% | 13.3% |
| 농촌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 8.0%  | 9.4%  |
| 농촌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융자)    | 17.3% | 14.6% |
| 일자리 제공                | 16.9% | 15.3% |
| 생활여건 개선               | 40.2% | 38.3% |

## IV.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이주 행태

충남의 총 146개 면지역 가운데 30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同年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면지역으로 전입해 온 전체 전입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및 전입 전 거주지(전출지)를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시도별 등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파악, 도시민들의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이동행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 1. 조사 대상 지역

충남 16개 시·군 가운데 계룡시<sup>5)</sup>를 제외한 15개 시·군별로 2개 면을 표본으로 선정 총 30개 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본 선정 기준은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면 지역은 제외하였으며, 비교적 전형적인 농산어촌의 특징을 가진 지역을 택하였다.

5) 계룡시에는 신도안면, 엄사면, 두마면 3개의 면이 있으나, 신도안면의 경우 전주민이 군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엄사면, 두마면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해 외부 유입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 본 연구의 성격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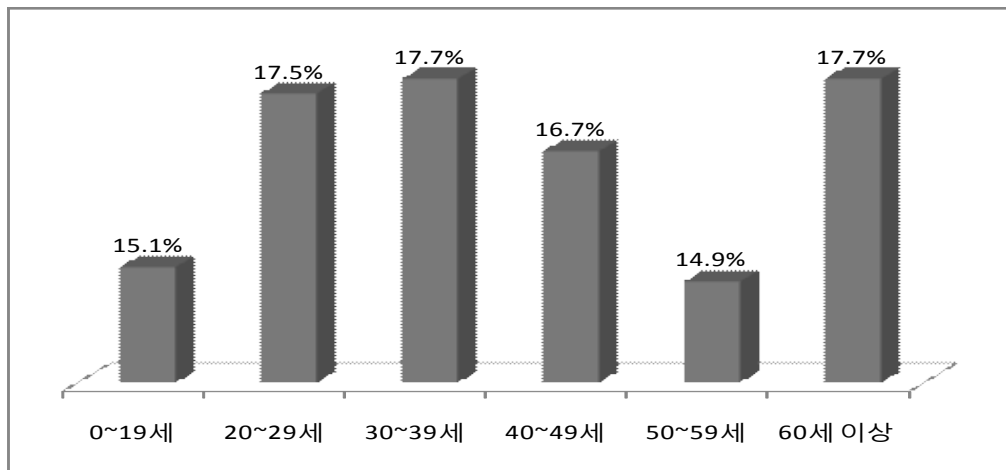
〈표 11〉 조사 대상 지역

| 시군  | 대상 면     | 시군  | 대상 면     | 시군  | 대상 면     |
|-----|----------|-----|----------|-----|----------|
| 천안시 | 광덕면, 수신면 | 공주시 | 반포면, 계룡면 | 보령시 | 남포면, 청라면 |
| 아산시 | 송악면, 영인면 | 서산시 | 부석면, 응암면 | 논산시 | 광석면, 상월면 |
| 금산군 | 금북면, 복수면 | 연기군 | 전의면, 전동면 | 부여군 | 장암면, 구룡면 |
| 서천군 | 마서면, 문산면 | 청양군 | 비봉면, 대치면 | 홍성군 | 홍동면, 홍북면 |
| 예산군 | 응봉면, 오가면 | 태안군 | 오가면, 소원면 | 당진군 | 고대면, 정미면 |

## 2. 조사 결과

### 1) 성별·연령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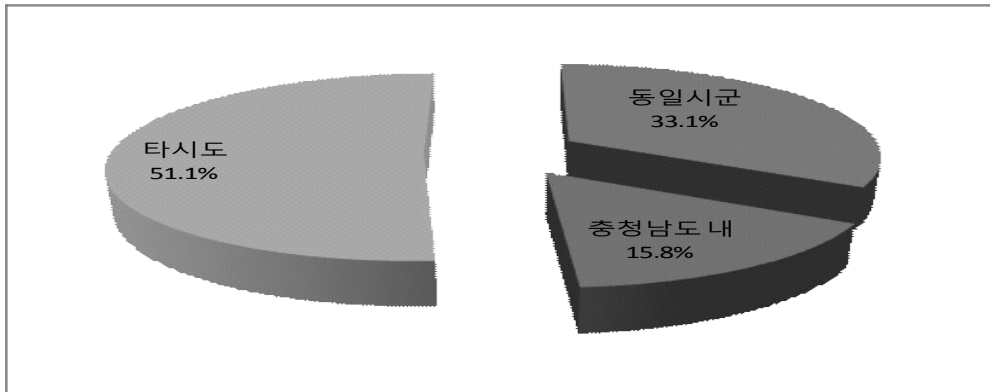
-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인구의 성별 비율은 남자 51.7%, 여자 48.3%로 성별에 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단, 연기 전동면(남자 비율 61.2%), 금산 금북면(남자 비율 57.9%), 청양 비봉면(남자 비율 57.5%)의 경우 남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 한편,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39세와 60세 이상이 각각 17.7%로 가장 많았으며 20~29세 17.5%, 40~49세 16.7%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전입자가 제법 많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 60세 이상 고령층의 전입자가 많은 지역은 천안 광덕면, 아산 영인면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농촌지역과 홍성군 홍동면으로 귀농·귀촌지역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전입자 연령별 분포

## 2) 전출지 권역별 특징

-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살펴본 결과, 동일 시·군에서 33.1%, 충청남도 내 타시·군에서 15.8%, 타시·도에서 51.1% 전입해 온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경우 충청남도가 아닌 타시·도에서 전입해 왔다.



[그림 5] 충남 농촌지역 전입자의 전출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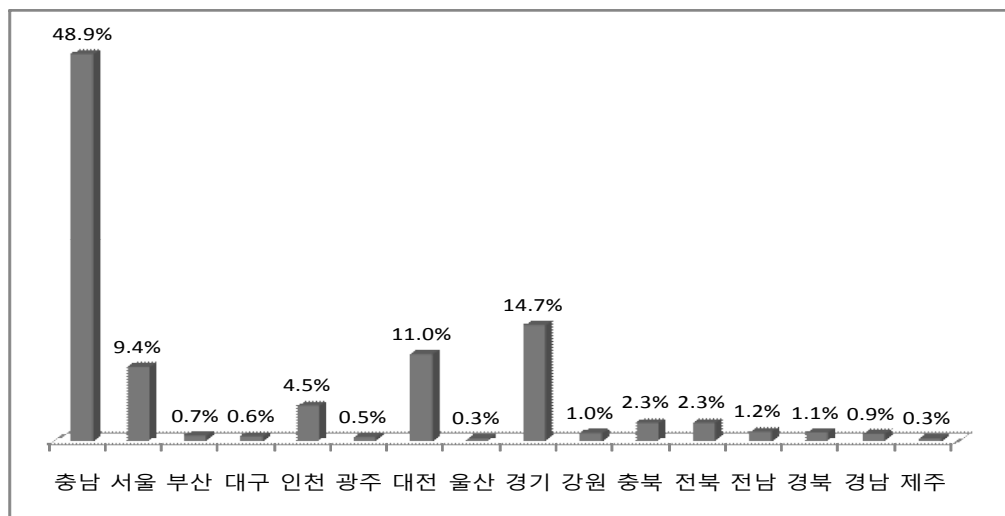
- 특이한 점은 금산 복수면, 공주 반포면의 경우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온 비율이 약 90%로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것은 두 지역 모두 대전시와 인접해 대전시로 부터의 유입인구가 많았을 것으로 보여 진다.

## 3) 전출지 속성별 특징

-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우선, 도시/농촌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으로부터 전입한 비율이 80.0%로 농촌지역의 20.0%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91.4%가 도시지역으로 나타나 도시지역 주민들의 농촌이주가 제법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도시지역으로부터 전입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공주 반포면(90.0%), 금산 복수면(90.4%), 보령 청라면(89.3%)으로 나타났다.
-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관계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28.7%, 비수도권이 71.3%로 나타났으며 태안 이원면(수도권 53.4%), 당진 정미면(수도권 52.6%), 아산 영인면(수도권 41.3%)의 경우 수도권에서의 유입이 전체 평균 보다 무척 높았다.

#### 4) 전출지의 시도별 분포 특징

-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시·도별로 살펴 본 결과 충남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14.7%로 충남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이다. 그 외 대전 11.0%, 서울 9.5%, 인천 4.5% 순으로 나타났다.
-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천안시 광덕면, 수신면의 경우 인근의 충북으로부터의 전입이 뚜렷이 많았으며, 공주 반포면, 금산 복수면, 금산 금북면의 경우는 대전시로부터의 유입이 전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높았다. 서천 마서면의 경우 전북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타 시·도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비교적 많은 지역은 아산, 서천, 청양, 태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 이원면의 경우 예부터 인천지역과 연고가 깊은 탓인지 인천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이 22.0%로 경기, 서울보다도 월등히 높게 났다.
- 전반적으로 거리적 접근이 어려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으로부터의 전입 비율은 1.0% 전후로 무척 낮다.



[그림 6] 충남 농촌지역 전입자의 전출지 지역 분포

## V. 맺음말

### 1. 충남도 귀농·귀촌 수요 예측이 필요

- 귀농·귀촌 수요를 예상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중요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적정 수준에서 예산을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임
- 귀농·귀촌 수요를 잘 예측하려면 관련 통계의 정비가 필요. 귀농·귀촌의 정확한 개념정의와 통계작성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 취합하는 노력이 필요

### 2. 다각적인 귀농·귀촌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최근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귀농·귀촌현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실태를 파악하고, 유형에 따라 어떠한 특징들이 있으며 어떠한 정책수요가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함. 최종적으로는 유형별 적합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3. 충남도차원의 지원책 마련 필요

- 그 동안의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책은 대부분이 중앙정부 시책이고, 전국적으로 일부 시·군에서 독자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도 차원의 시책은 아직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음
-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차원의 지원책 및 지원제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됨

## ◆ 참 고 자 료 ◆

유학열(2010), “충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 중간연심회 자료

충청남도(2010),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 “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